

제주도내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에 관한 연구

현인숙

요 약

제주도내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 및 보건진료소 이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43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86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43명중 37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보건진료원의 분포, 업무배경, 의료자원, 이용주민수 및 업무수행 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의 배치양상

제주도 내에는 '87년 현재 2개 군에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1981년 2개소, '82년 3개소, '83년 6개소 '84년 8개소, '85년 10개소, '86년 14개소로 주민 500 이상, 통상교통수단 30분 이상의 의료취약 지구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된 배경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5세이며 연령 분포는 22-52세였으며 20-29세가 62.0%로 가장 많았다. 여자 89.2%, 남자 10.8%, 미혼 56.8%, 기혼 40.5%이며, 현 가족 동거 상태로는 혼자 사는 경우 51.4%로 가장 많으며,

97.3%에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이며, 유종교자가 78.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업무에 관련된 배경으로는 근무 지역은 갑지 71.4%, 을지 20.2%, 병지 18.6%로 나타났으며, 연 주거지로는 진료소내 거주가 81.0%, 민가거주 18.0%이다. 진료소 시설은 신축건물 사용이 28.9%, 기존 건물 사용이 71.4%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의 진료소들이 55.8%가 1985년 이후에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보건진료소의 시설상태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개소도 없고 55.6%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 제공실태

보건진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는 1,501-2,000명이 35.1%로 다수를 차지하며, 응답자의 63.3%가 1,001-1,500명이 적정담당 주민수라고 대답하였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총주민수는 501-2,000명이 58.3%, 이용건수는 501-1,000건이 41.2%였다. 1,501-2,000건이 29.4%의 순이었다.

4. 보건의료자원 및 협조관계 정도

사업대상 지역내에 있는 보건의료 자원은 보건지소 32.4%로 가장 많으며, 주민들의 이용도는 보건진료소 51.4%, 약국 22.9%의 순이다. 관

계기관의 협조관계를 보면 보건소에는 잘 되는 경우 27.0%, 잘 안되는 경우 13.5%이며, 보건지소인 경우 잘되는 경우 2.9%, 잘 안되는 경우 47.5%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들이 가장 많이 의뢰하는 기관은 병원 78.3%, 보건소 10.8%, 의원 5.4%로 나타났다. 감독체제는 보건소장 30.6%, 운영협의회장 16.7%의 순이며, 전문감독 요원에 의한 기술지도 및 감독은 64.8%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업무영역별 수행빈도

수행업무 7영역 중에서 가장 수행빈도가 높은 것은 평균평점이 3.7로서 통상질환관리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2.9로서 보건정보체계 개발이다. 수행업무중 수행도가 가장 높은 것은 환자진료 기록부 작성으로 4.4이며, 가장 낮은 업무는 지역사회보건관리 영역에서의 음료수관리를 위한 검사물 채취로 2.1을 나타냈다.

업무영역별 평균 수행시간은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통상질환관리가 19.65시간(44.7%),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7.4시간(16.8%)의 순이며,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한 업무는 2.7시간(6.1%)으로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일차보건의료를 실시하는 보건진료소에서 본연의 업무인 예방사업과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충족보다는 진료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며,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그들의 건강수준을 적정기능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원의 업무가 치료중심인 사업보다는 지역사회 건강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고 자립화할 수 있는 정비가 시급하며, 우리 나라실정에 맞는 일차보건의료 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